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en.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 오늘 오후 예배 후 14시부터 입교자(고성훈 학생)를 위한 당회 문답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 다음 주일 (5/16)에 5월 제직회가 있습니다. (Zoom, 오후 5시)
- 오늘 17시부터 성경훈련학교(BTS, Bible Training School) 7강이 진행됩니다.
- 2021년 전반기 성경필서는 빌립보서-요한삼서까지입니다.  
기간은 5월 말까지입니다. 문의 및 필사본 제출(장년 교육부, 유정훈집사)

섬김이		예배 및 봉사구역		교회 후원 선교지
담임목사	사무장로	날짜	기도	
한성호	소병찬	05.09	홍승연	• 키르키스탄(다니엘 P)
교육목사	이정수	05.16	김영균	• 코소보(S00)
정희경	이태성	05.23	소병찬	• 독일 쾰른(N00)
교육전도사		05.30	박도실	
장재성				

**출애굽기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2.Mose 20:12** Du sollst deinen Vater und deine Mutter ehren, auf dass du lange lebest in dem Lande, das dir der HERR, dein Gott, geben wird.

Freue dich über den HERRN, und er wird dir geben,  
was du dir von Herzen wünschst (Psalm 37:4)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4)

▲ 주일예배 1부 오전 12:00 인도자 : 한성호 목사

찬 양	Lobpreis		찬양부
※ 묵 도	Eingangsgebet		다함께
※ 찬 송	Lobpreis	310 장	다함께
※ 신앙 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
성시 교독	Wechsellesung	98 문	인도자
대표 기도	Gebet		홍승연 집사
봉 헌	Kollekte	213 장	다함께
성경 봉독	Schriftlesung	잠언 23:22-26	인도자
찬 양	Lobpreis	어머니의 기도	성가대
말씀 선포	Predigt	너희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한성호 목사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 찬 양	Schlusslied	마라나타	다함께
※ 축복 기도	Segen		한성호 목사

▲ 수요기도회 수요일 20:00 온라인 예배 한성호 목사

예배안내	섬김예배	주일 10:30	청소년실	주일학교 예배	영유아/유치 유년/초등	주일 12:00	별관
	주일예배	주일 12:00	본당			주일 12:00	별관
	수요기도회	수요 20:00	본당	청소년부 예배		주일 12:00	별관
				청년부 예배		금요 20:00	본당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부에서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청소년부와 관련된 몇 가지 소식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몇 주간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소속감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참여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 로고와 공동체 이름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MJ(Mainz Chung-Ang Jugend)라는 이름과 좌측에 보이는 로고가 채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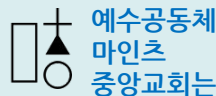
지난주 월요일 부터 학부모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과 우리가 교사로서 교회에서 보는 아이들의 모습을 나누고, 또 부모의 관점에서 보는 모습에 관한 이야기도 들으며 앞으로의 양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목적으로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육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 16일에 성훈이의 입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스스로 서야 할 때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입교가 성훈에게 주는 의미가 큰데, 다음 주 입교식 때 많은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간 말씀과 여러 모임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정의 의미와 부모님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가르칠텐데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부분들을 함께 극복하려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은 아이들이 함께 뭔가를 하기보다 각자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들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부모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모인 것에 적응이 되어서 기도 모임이나 성경 모임 등 주일 외에도 함께 모이는데 부담이 적어 어렵지 않게 모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 활동들을 고민하며 계획하고 있고, 아이들의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을 격려하기 위해 양육과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늘 위해서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사랑합니다!**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 사랑은 동사입니다 ::

**사랑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 데이비드 윌커슨

**Love is not only something you feel, it is something you do.**  
 - David Wilkerson

사랑은 거창한 구호인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잘 포장하여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형용사나 부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동사입니다. 이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은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추상이 아닌, 실제로 정의합니다. 그는 두 가지 해야 할 것(do)과 하지 말아야 할 것(don't)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인지를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 기 도 제 목

- ❖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사오니 성령충만, 말씀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 ❖ 우리에게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며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 ❖ 부모님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시고 많은 영혼과 정신을 허락하시어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녀의 자녀를 보도록 장수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올리는 기도에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 ❖ 자녀들이 영과 육이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여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 ❖ BTS(성경훈련학교)를 진행하는 목사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배움의 기쁨을 주옵소서.
- ❖ 아비투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형통함을 주옵소서.
- ❖ 어려운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사역가운데 선한 열매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공동체**입니다.
-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공동체**입니다.
-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동체**입니다.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의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시다.

# 기쁨 나눔 상자 이야기

땡땡! <기쁨 나눔 상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선물을 전달하며, 어느새 쑥쑥 자란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박웃음으로 선물받는 모습에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어른이 되면서 자주 잊고 익숙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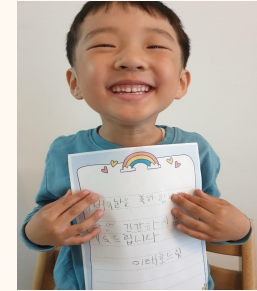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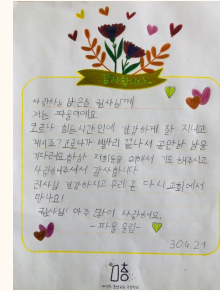
주일학교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준비한 <기쁨 나눔 상자>는 달콤한 간식이나 실용적인 학용품같은 물건만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편지까지 함께 들어 있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의 귀한 이야기를 담은 더욱 뜻깊은 부활절 기쁨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주일 선물을 받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룸모를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며 주일학교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가 여러모로 쉽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는 각 가정들과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거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쁨 나눔 상자>는 5월 초에 독일 쾰른을 비롯한 각 난민 선교지로 전달됩니다.

각 연령과 성별에 맞춰 전달되는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 선교지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 어버이 주일



“안녕하세요? Wie geht es dir?”

손으로 글자를 쓰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주일학교 친구들이 정말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 마인츠 중앙교회 원로회 성도님들께 편지를 쓰기로 했거든요.

무슨 말을 써야할지, 무슨 그림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게 되지만 편지 한장으로 전해질 소중한 아이들의 마음은 그 모든 고민을 뛰어넘게 합니다.

부모님이 써주신 한글을 뽀뽀뽀 따라서 쓰거나 좋아하는 색연필로 예쁜 꽃과 나비, 마음을 담은 하트를 그리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그리운 교회 원로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보고 싶다는 인사, 사랑한다는 표현, 고맙다는 마음이 이 짧은 편지 한장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만나면 좋겠다는 바람은 모두 같은 마음이지만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처음으로 편지를 쓰고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들이 그린 편지 속의 꽃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믿음의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코로나가 빨리 업서지고 가치 만나면 좋겠어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